

문학 비평이 하는 일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의

기본적인 정의

1.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기대한다. → 비평적으로 읽는다.
2. 그러한 내용들을 쓴다. → 비평한다.

비평적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

1. 독해한다.
 - 문자 그대로의 뜻
2. 느낀다 / 이해한다
 - 문학적 의미; 감각의 쾌락
 - 역사적, 사회적 의미; 의미 획득
 - → 비평 행위의 중심축: 이 두 방향이 ‘함께’ 진행시키려고 한다.
3. 판단한다: 징후적으로 읽는다
 - 문학적 가치
 - 사회적 가치
4. 기대한다: 읽기를 삶의 지평 위에 올려 놓는다.
 - 문학의 진화
 - 문학의 효용

‘쓰다’의 의미

씌어진 것에 대해서 쓴다.

- 문학비평은 문학에 대한 문학이다.
- 읽기는 쓰기이다. → 쓰기는 읽기이다.
- 발언과 반성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된다.

공감한다.

- 작자의 체험을 함께 느낀다.
- 작자의 체험을 다시 살아본다.
- 체험의 의미를 체험자로서 주고 받는다.
- 정신의 영구 회귀(무한 교류):

언어조직을 섬세히 읽기

“모래내, 沙川을 넘어 구로동으로 가자”

(황지우, 「92」, 『나는 너다』)

언어구성을 비판적으로 읽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魂 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전문)

징후적 읽기

옛날의 문제: '설움'

오늘날의 문제: '우울'

설움의 예와 분석

김소월: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초혼」), “옛낫없는 설움”(「옛낫」), “오오 불설위”(「접동새」)

이상: “설움을 흥으로 울기 전에 따에 놓아 하늘에 부어 놓는 내 억울한 술잔”

김수영: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헬리콥터」)

설움은 억울한 심사다.

설움은 불행한 삶의 원인은 타자에게로 돌린다.

설움 현상은 1987년 이전까지의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을 이룬다. → ‘한’의 미학으로 발전.

우울의 예와 분석

“심장을 찌르는, 찌릿찌릿한 회한 같은 것을 지그시 참고 있는 흐릿한 우울”(황지우, 「또 다른 소식」)

“일수 빛처럼 매일 한 번씩 찾아오는 / 노을과 / 우울 / 곧 싱싱하고 아름다운 저 거리들 사라지리라 / 곧 김치 다시 담가야 하리라 / 한번 나가 보기도 전에(김경미, 「부엌에 대하여」)

우울은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한탄이다.

우울 현상은 1988년 이후 한국인의 보편적 증상이 되었다.

우울은 자기 질책보다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푸념이다.

- 예: “죽음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구나 / 아아, 이렇게 내가 죽다니 / 알고는 있었으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 / 이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음! / 삶이란 게, 좇또 아무것도 아니었네 (황지우, 앞의 시)

징후적 읽기를 삶의 지평에 올려 놓기

이성복의 ‘설움’으로의 귀환

이성복 시집, 『래여애반다라』 (문학과지성사, 2013)

來如哀反多羅: “오다, 서럽더라.”

목숨은 오물이다.

입술을 유리창에 대고 네가 뭐라고
속삭일 때 네 입술의 안쪽을 보았다
은박지에 썰어 놓은 해삼 같은 입술
양젓물에 헹귀 놓은 막창 같은 입술
쓰레기통 속 고양이 털줄 같은 입술,
이라고 말하려다 나는 또 그만둔다
애인이여, 내 눈엔 축축한 살코기밖에
안 보인다, 내 꿈에 낀 백태 때문에 (이성복, 「입술」)

설움의 새로운 양태

그날 밤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혈떡거리던 청년의
내려진 팬티에서 검은 고추, 물건, 성기!
이십 분쯤 지나서 그는 숨을 거뒀다
그리고 삼십 년이 지난 오늘 밤에도
그의 검은 고추는 아직 내 생 속을 후벼 판다
못다 찌른 하늘과 지독히 매운 성욕과 함께 (「오다, 서럽더라 1」)

우울/설움

황지우의 우울은 세상의 무의미를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로부터 벗어나길 촉구하는 “시퍼런 별”로 창천에 뜬다.

이성복의 설움은 “못다찌른 하늘” 아래의 지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가중된다.

세 문장으로 된 설움

“오다, 서럽더라” = ‘오다’ + ‘,’ + ‘서럽더라’

- ① ‘나는 청년의 삶의 현장으로 온다.’;
- ② ‘나는 청년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내 고통처럼 느낀다.’;
- ③ ‘그러나 나는 청년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어 서럽다.’

‘연민’의 주체로서의 ‘나’

인간만이 ‘연민compassion’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

“옆 사람을 대신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는 책임감”

이 책임감만이 “사랑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레비나스

연민의 한계

- (1) 내가 타자를 대신할 때 그 타자는 일단 없는 존재가 된다.
- (2) 그 없는 존재가 어떻게 다시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 (3) 이성복의 ‘서러움’:
 - 타자를 느끼되, 그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 그렇다면 이 서러움은 타자가 스스로를 살아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일깨운다.

설움의 궁극적인 지향

타자의 삶은 타자 스스로 살아야 한다.

- (1) 타자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데에서 주관성의 근본을 찾는다.
- (2) 타자에 대한 책임은 느낌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못해야 한다.
- (3) 그 불가능성이 타자에게 주관성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명제를 필연성으로 만든다.
- (4) 이 필연성은 주관성의 반성적 유보와 함께 '함께 존재함'에 대한 숙고로 이어진다.